

## 자연에서 생명의 섭리 일깨우는 시의 울림

자연을 통해 인간을 노래한 다섯권의 시집

엄경희 | 문학평론가

올 상반기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집들이 유독 눈에 띈다. 건강한 자연성을 노래한 시집부터 황폐해진 자연과 인간성 회복을 노래한 시집,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되비추는 거울로서 자연을 다룬 시집 등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이런 경향은 최근 생태적 관심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집은 자연이 가장 참신한 시적 제재라는 사실 또한 증명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출간된 시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독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집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시집으로 묶인 작품뿐만 아니라 올해 문학 잡지에 발표되고 있는 시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자연은 자족적이며, 편재적이고 영속적인 특성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보육하는 궁극의 자양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경이와 신비의 대상이며, 모든 생명 현상의 섭리를 말해주는 경전이다. 시가 인간의 감정과 사상, 이념 등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 행위라면, 시인이 인간 삶의 태줄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매개로 자신의 내면을 표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 참신한 시적 제재로서 자연 노래해

그러나 도시적 환경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자연 시가 두드러지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향은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일차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도시적 감각에 치진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것이 역으로 생동감을 줄 수 있듯, 자연은 이제 시적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참신한 제재로서 쓰일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고재종의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시와시학사), 이하석의 《녹》(세계사), 고진하의 《얼음수도원》(민음사),

장석남의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창작과 비평사) 등은 모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집들이다. 이외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집은 아니지만 송재학의 《기억들》(세계사)은 깊이 있는 존재론적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집이다.

넓은 언어를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시인이 추구해야 할 임무라면, 이는 낮설게 하거나 기존 어법의 전복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실 모든 지시적 언어는 의미가 고정되는 순간 낡아지는 숙명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언어가 사용되지 않을 때 언어의 비극적 숙명은 가속화된다. 이런 언어의 숙명으로부터 말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언어, 혹은 사멸의 기로에 놓인 언어를 문면으로 끌어내는 일이다. 고재종의 시집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는 세월의 먼지 속에 사멸돼가던 고어와 토속어, 한자어를 헛간에서 꺼내 맑게 닦아놓는다. 이와 더불어 '달빛은 율량율량' '논실난실' '쫘, 빠지, 쫘, 빠지' '쇠리쇠리 먹갈 때' 등 참신한 의성·의태어를 통한 사물의 감각화와 리듬의 구성 또한 시적 묘미를 자아내는 요인이다.

이처럼 언어에 대한 성찰적 노고가 두드러지는 이 시집은 토속적이고도 자연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천착해보면

이 시집은 소박한 자연 예찬적 태도 이상의 것을 담지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 고재종이 이 시집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다. 그의 자연은 왕오색나비가 내려앉으면 사방이 향기로 환하게 퍼지고, 그 퍼짐이 청명한 하늘을 열어 놓는다는 식으로 서로 인과적이고 계기적인 질서로 이뤄져 있다. 인과적 맞물림은 안에서 밖으로, 좁은 데서 넓은 공간으로 세계를 확대시킨다. 이런 자연을 시인은 '창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연의 장엄함보다 더 장엄한 것이 그에게는 "저 참절의 떡때왈빛 얼굴들"을 하고도 "강으로 오늘을 씻고 산으로 내일을 세우"는 사람들의 풍경이다. 삶의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얼굴을 시인은 매화꽃으로, 바람으로, 새움음으로 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연처럼 맑고 생생하다. 이것이 이 시인의 사랑으로 보인다.

### 상처로 가득찬 자연 응시해

고재종이 자연의 생생한 빛을 통해서 토속적 삶의 건강성을 복원하고 있다면, 이하석의 시집 《녹》은 황폐해진 자연과 인간 삶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이하석은 생태주의자의 시선으로 병든 자연을 응시한다. 그에게 자연은 여전히 무구하고 싱그럽지만 그 안은 상처로 가득하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젖은 채 부식돼가고, 새들은 더 깊은 곳으로 쫓겨들어간다. 이제 꽃나무는 수상한 향기를 뿜어내고, 산비탈은 흉하게 깎여 더 이상 생명을 보육하지 못한다. 자연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동지 사람들의 아리랑 가락과 아이들의 반짝이는 연놀이와 메아리를 함께 수몰시킨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왜 없어져야 하나”(《동강댐 막으면》) 반문한다. 여기에는 산업화의 물지각을 비판하는 시인의 의식이 내재해 있다. 이하석의 이런 의식은 검은 비닐, 녹슨 쇠, 기름과 먼지가 뒤덮인 불모의 세계를 통찰하고 있는 그의 첫시집 《투명한 속》(문학과지성사)에 이미 예견돼 있던 씨앗이다. 그러나 예전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드러내줬던 상징들을 평이한 자연 풍경이나 일상적 사건으로 대체함으로써 그의 시가 컸던 강렬한 인상이 엷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고진하의 시집 《얼음수도원》 또한 자연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집이다. 그러나 그에게 자연은 인간의 현실적 삶과 연결돼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되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자연은 ‘속 깊은 어미’며, ‘내 안의 물거울 위에’ 씌어진 경이의 글자다. 그에게 자연은 신성한 경전인 것이다. 시인은 이런 자연 세계를 통해 자신의 내적 결함을 성찰함으로써 정신의 물거울을 깊고 투명한 것으로 닦아내고자 한다. 그의 시에서 간혹 알레고리적 상상력과 마주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그저 맑고 싱그러운 것만은 아니다. ‘고목’을 통해 고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오랜 세월의 고통을 감내해왔기 때문이다. 〈낙타무릎의 사랑 1—피정 일기〉 같은 시에서 망가진 허파로 푸름을 키우는 ‘늙은 측백나무’를 수도사에 비유하고 있는 까닭은 ‘늙은 측백나무’의 고통과 신비가 곧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리의 정신을 치열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꿈’에 대한 답론이 무반성적으로 성행하는 요즘의 문학 풍토 속에서 고진하의 이와 같은 자연시는 정신주의적 가치를 되새겨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아쉬운 점은 그의 정신주의가 주로 자신의 내적 성찰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리마를 보면 세월이 느껴진다〉와 같은 시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의 시에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그의 자연시가 현실의 보편적 삶을 함께 아우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광포한 현대 문명에서 벗어난 자연 그려

꽃, 달, 강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석남의 《왼쪽 가슴 아래쪽에 온

통증》은 고요한 절간 한 채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시집이다. 이 시집의 자연은 그의 연작 시 〈수묵(水墨) 정원〉의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 동양적이고 선(禪)적인 담백함을 드러내고 있다. “단 두 개의 서까래를 올린 / 집 / 속으로 달이 / 들락날락한다”(〈달과 수수대—“빈(貧)”〉)와 같은 구절에서 보듯 이 시집의 시적 공간은 빈 것으로 가득하다. 식탁과 긴 의자와 마당과 주춧돌은 모두 비어 있다. 사랑하는 ‘님’은 부재로서 존재하고, 시간은 ‘오늘은 쉬는 날’이라는 팻말을 걸고 있다. 이런 공간 위에 엷은 꽃빛이나 는개 같은 것이 번지고, 시인은 그것을 ‘맑은 양식’으로 삼는다. 그의 시적 화자는 햇빛 맑은 너럭바위 같은 곳에 앉아 마치 소요(逍遙)하듯 이를 바라보거나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난과 그리움, 설움, 죽음 등 삶의 고통으로부터 미적 거리를 만들어 간다. 이처럼 아픔을 걸러내는 심리적 거리를 시인은 ‘큰 꽃밭’(〈距離〉)이라고 말한다. 현대적 삶의 구조에 빗대볼 때 장석남의 이와 같은 상상력은 매우 희귀하게 느껴진다. 그의 시집에 담긴 시적 이미지와 공간은 모두 광포한 현대의 속도를 끊어버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속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듯하다. 그 느낌 속에 담겨 있는 시의 언어는 맑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언어가 담아내는 달관의 포즈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다시 묻게 된다. 이것이 이 시인의 사유의 방식이라면 너무 빨리 조로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 담겨

송재학의 《기억들》은 시적 형식미보다는 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시인의 고뇌가 두드러져 보이는 시집이다. 마흔 중반에 접어든 시인은 “내 심장은 황무지의 일부인 양 무겁게 뛰었다”(〈황무지란 바람을 숨긴 이름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런 것처럼 그는 존재의 감춰진 어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 시집에 나오는 그림자가 으깨진 은사시나무, 자신이 모은 독으로 자신을 다짐하는 두꺼비, 누가 배고파서 뜯어먹은 편육 같은 부처의 얼굴 등은 모두 시인의 내면 풍경이 투영된 일종의 ‘황무지’다. 이 어둠의 심연을 시인은 ‘상자’(〈나에게 상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상자에 갇혀 “꿈만으로 쉽사리 돛”(〈서행(西行)〉)이 부풀지 않는 존재의 무게를 감내하며, 시인은 자주 죄를 말하고, 이와 더불어 환생과 후생을, 그리고 누에의 변신을 말한다. 이는 그가 인간의 존재방식, 즉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집은 형이상적이다. ●